

주요 내용

1. [2022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한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져!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경제성장 대비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수준(국제비교)

2) 한국 시도별 워라밸 수준 비교



한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져!

매 3년 간격으로 정부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2022년 조사 결과가 작년 말 발표되었다.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이기에 이번 넘버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 조사 보고서의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품었던 엄격한 전통적 가치관과 보수적 관념이 약화되고, 개방적/개인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혼전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에 공감하는 비율은 2016년 37%에서 2022년 58%까지 높아졌고, '낙태 해도 된다'에 공감하는 비율은 2016년 27%에서 2022년 5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해도 된다'는 의견도 2016년 41%에서 2022년에는 56%로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뒤집어졌다. 혼전순결, 낙태, 이혼 등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대인 것이다.

한국인들의 결혼/가정관의 변화는 곧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5,100명
• 조사 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 규모	5,1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방법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집계구' 리스트 활용한 층화확률비례추출법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4\%p$
• 조사 기간	2022년 7월 13일 ~ 8월 24일
• 조사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 수행 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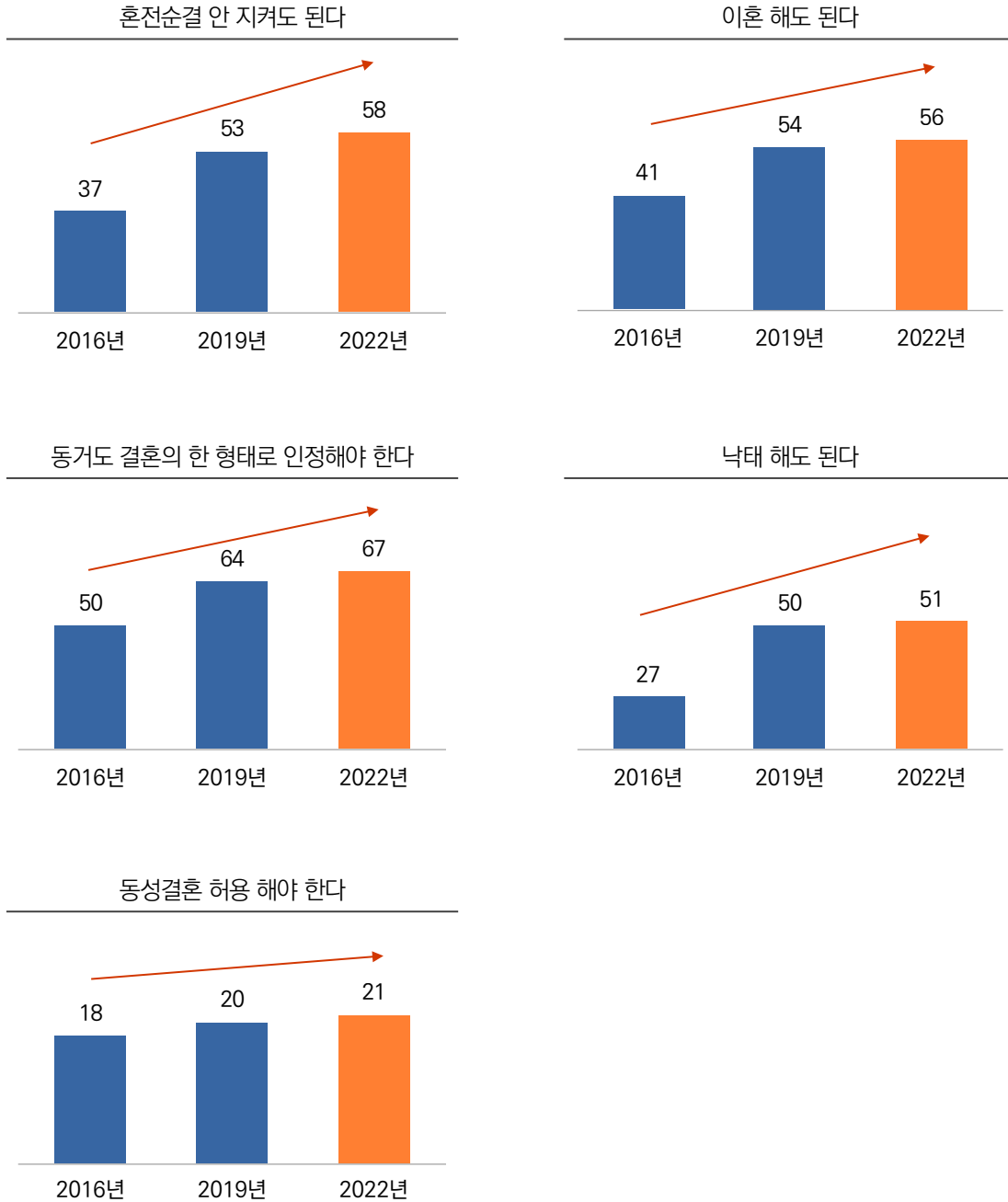
01

[전통적인 가치관]

결혼/가정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 지속적으로 높아져!

- ▶ 혼전순결, 이혼, 동거, 낙태, 동성결혼 등 결혼/가정과 관련한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 특히 '혼전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에 공감한 비율은 2022년 58%로 2016년 대비 21%p 높아졌으며, '낙태 해도 된다'에 공감한 비율은 51%로 2016년 대비 24%p 높아졌다.

[그림]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공감/긍정 응답 비율, 4점 척도, %)



◎ 비종교인들이 종교인보다 더 개방적이며, 개신교인의 개방적 성향, 불교인보다 더 높아

- ▶ 전반적으로 비종교인이 종교인에 비해 결혼/가정 인식이 전반적으로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신교인의 개방적 성향은 불교인보다는 높고 천주교인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종교별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공감/긍정 비율, 4점 척도)

	동거(사실혼) 인정	혼전순결 비동의	이혼 동의	낙태 허용	동성결혼 허용
전체	67%	58%	56%	51%	21%
개신교	68%	52%	61%	45%	18%
불교	68%	46%	46%	45%	15%
가톨릭	64%	57%	56%	57%	22%
무종교	67%	61%	60%	5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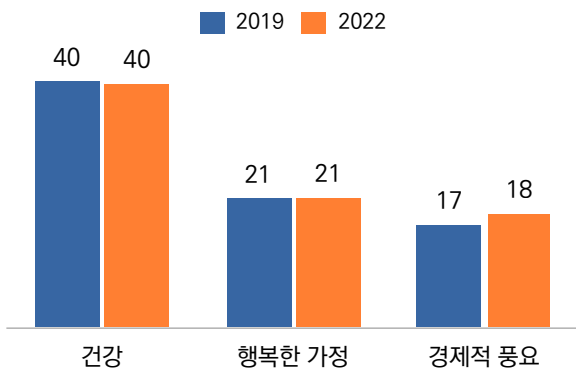
02

[삶의 우선순위]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정보다 건강!

-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건강'이 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 21%, '경제적 풍요'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인이 가정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2019 vs 2022, 상위 3위, %)



◎ 그러나 청년들은 가정과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

-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20대는 자신의 능력개발과 경제적 풍요를, 30~45세의 장년층은 가정/경제적 풍요/건강을 골고루 선택하고 있다.
- ▶ 40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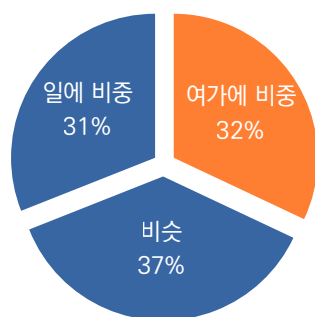
[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연령별 각각 4위 응답)

	1위	2위	3위	4위
19~29세 (청년층)	자신의 능력 개발 (24%)	경제적 풍요 (21%)	건강 (16%)	행복한 가정 (12%)
30~45세 (장년층)	행복한 가정 (27%)	경제적 풍요 (25%)	건강 (23%)	사회적 성공 (9%)
46~60세 (중년층)	건강 (46%)	행복한 가정 (25%)	경제적 풍요 (17%)	사회적 성공 (4%)
61~79세 (노인층)	건강 (65%)	행복한 가정 (15%)	경제적 풍요 (12%)	사회적 성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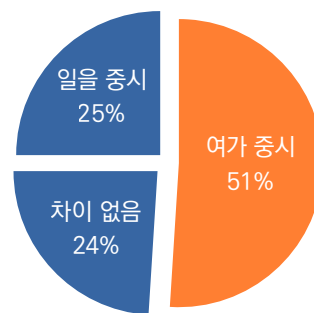
◎ 청년, 일보다는 여가 중시!

- ▶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 일(학업)과 여가가 균형이 맞는 경우가 37%였고, 여가에 비중을 두는 경우도 32%나 되었다.
- ▶ 앞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즉, 워라벨 추구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삶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 청년들의 가치관은 전체 국민과 다소 상이함을 보이는데, 청년들은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인식**



[참조]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청년 대상)*



*자료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 경제-실태조사, 2021.12.31. (만 18~34세 청년 2,041명, 개별 면접조사/유치조사 병행, 2021.07.19.~10.29)

**10점 척도로 일에 비중을 둠(1~4점), 비슷(5~6점), 여가에 비중을 둠(7~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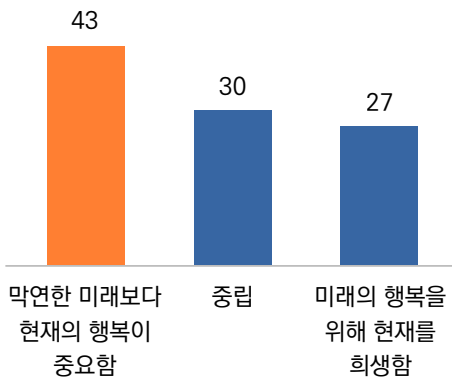
03

[삶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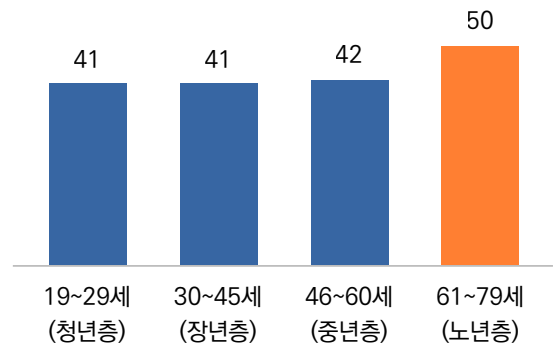
한국인의 '올로현상',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

- ▶ 행복에 관련한 삶의 방식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 vs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의 진술문으로 물어보니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3%로 '미래의 행복이 중요하다'(27%)보다 높게 응답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세대 간에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 ▶ 이는 과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현상이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



[그림] 연령별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현재의 행복이 중요함'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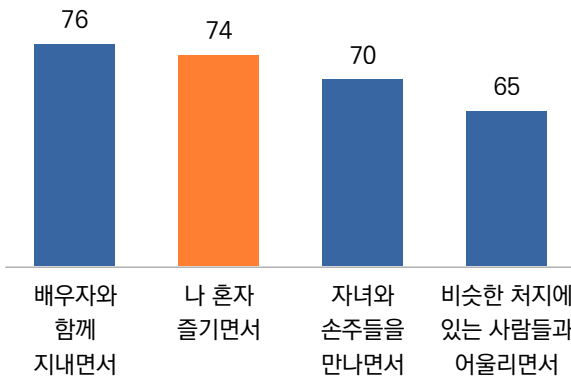


*10점 척도로 미래의 행복 중요(1~4점), 중립(5~6점), 현재의 행복이 중요(7~10점) 비율임

◎ '나 혼자 즐기면서' 보내는 노후생활 중요 74%!

- ▶ 노후생활 방식 4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묻은 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 '나 혼자 즐기면서' 74%로 비교적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나 손주들을 만나면서' 70%,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65% 순이었다.
- ▶ '부부 중심'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비혼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홀로 즐기는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노후 생활 방식에 대한 중요도 ('중요하다' 응답률, %)



*5점 척도 질문으로 '중요하지 않다'(전혀+별로), '보통이다', '중요하다'(매우+약간) 비율임

04

[가족에 대한 인식]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후 친구, 가족, 전문가 등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묻은 결과,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상황'의 경우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다만 감정적·심리적 문제에서는 '친구'(42%)가 '가족'(35%)보다 높은 점이 주목된다.

[표]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 (각각 상위 3위까지)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금전적 문제	긴급 혹은 재해 상황
1	친구 (42%)	가족 (52%)	가족 (71%)	가족 (66%)	가족 (39%)
2	가족 (35%)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28%)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5%)	친구 (9%)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18%)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6%)	친구 (5%)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4%)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8%)	친구 (3%)

*해당 문제를 겪은 적 없음은 제외

◎ 결혼생활 중인 기혼자와 고령층, '감정적 문제' 발생 시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 요청!

- ▶ 앞서 '감정적·심리적 문제' 발생 시 가족보다는 친구를 찾는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연령별/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달라질 수 있다.
- ▶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 친구보다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 결혼 생활 중인 기혼자의 경우에도 친구보다 가족을 먼저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응답자 특성별 '감정적·심리적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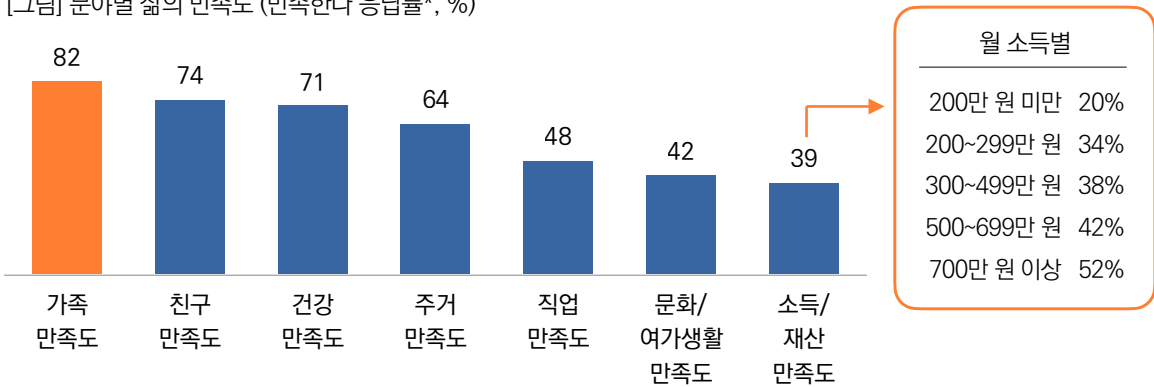
연령별				결혼 상태별			
19~29세 (청년층)	30~45세 (장년층)	46~60세 (중년층)	61~79세 (노년층)	미혼	사실혼	기혼 (배우자 동거)	기혼 (배우자 비동거)*
친구 (55%)	친구 (46%)	친구 (39%)	가족 (43%)	친구 (54%)	친구 (35%)	가족 (44%)	친구 (44%)

*사별, 이별, 별거 등

◎ 가족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은 반면, 직업/여가/소득 만족도는 50% 밑으로 떨어져

- ▶ 가족, 친구, 건강, 주거, 직업, 문화/여가생활, 소득/재산 등 7가지 항목을 10점 척도(1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함)로 제시한 후 각각의 만족도(만족한다 응답률)를 측정한 결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82%로 가장 높았다.
- ▶ 반면, '직업 만족도'와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절반이 안되는 40%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직업과 여가생활은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둘 다 만족도가 낮은 점이 주목된다.
- ▶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도'는 39%로 제시된 7가지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그림] 분야별 삶의 만족도 (만족한다 응답률*, %)



*해당 질문에 7~10점(만족한다) 응답자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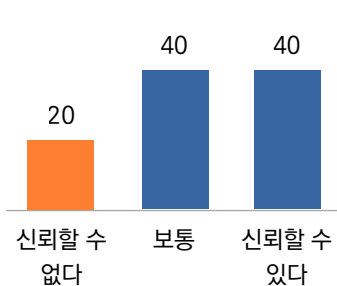
05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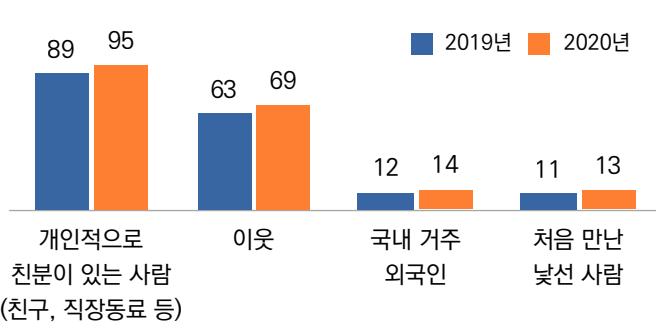
한국 거주 외국인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

- ▶ 이번에는 사회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할 수 있다' 40%, '보통' 40%, '신뢰할 수 없다' 20%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보다 높았으나, 국민 전체적으로 우리사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50%가 채 안되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 한편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 69%, '국내 거주 외국인' 14% 등의 순이었는데 2019년 조사 대비 모든 사회적 자원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3년 전 대비 다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 ▶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10%대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불신도가 아직까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



[그림]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신뢰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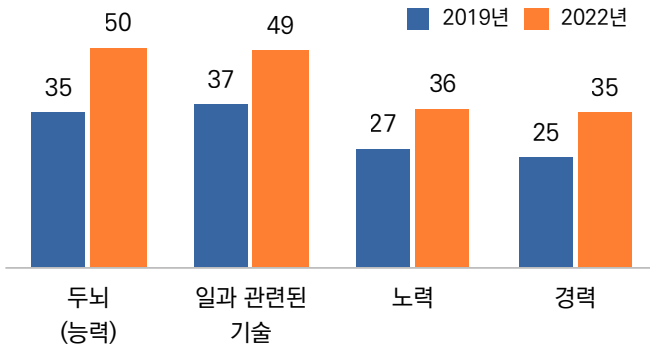
*10점 척도로 신뢰할 수 없다(1~4점), 보통(5~6점), 신뢰할 수 있다(7~10점) 비율임

**4점 척도로 신뢰한다(매우+약간) 비율임

◎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우가 공정한가? ‘나의 노력’, ‘나의 경력’ 대우 공정하지 못하다

- ▶ 우리 국민은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 대해 공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두뇌(능력)’ 50%, ‘일과 관련된 기술’ 49%, ‘노력’ 36%, ‘경력’ 35% 순으로 나타났다.
- ▶ 절반이 넘게 우리사회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감이 높아, 공정한 대우를 위한 논의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 ▶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항목에서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조사 대비 증가한 점이다.

[그림]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공정하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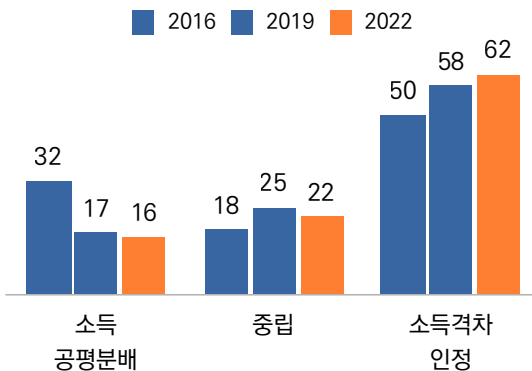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으로 공정하다(매우+약간) 비율임

◎ 한국인 경쟁주의 인식, 지속적으로 강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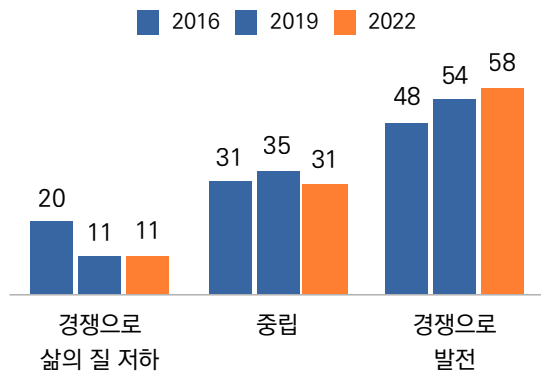
- ▶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 한다’는 인식이 2019년 58%에서 2022년 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인식은 2019년 54%에서 2022년 58%로 증가해, 경쟁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소득분배에 대한 의견*



*10점 척도로 소득 공평 분배(1~4점), 중립(5~6점), 소득 격차 인정(7~10점) 비율임

[그림] 경쟁에 대한 의견**



*10점 척도로 경쟁으로 삶의 질 저하(1~4점), 중립(5~6점), 경쟁으로 발전(7~10점)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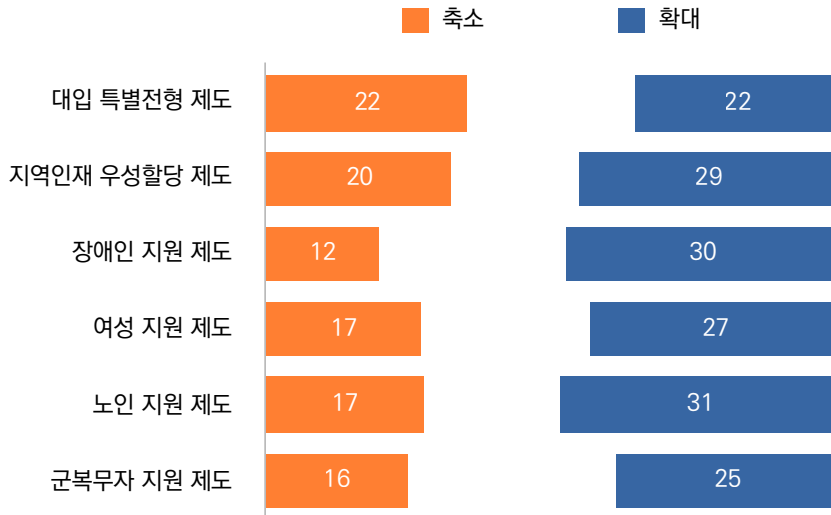
06

[소수자 지원]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높은편!

- ▶ 각종 소수자 지원 제도를 6가지로 분류하여 각 지원 제도별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 ▶ 소수자 지원 제도 가운데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제도는 '대입 특별전형 제도'로 22%였고, 반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제도는 '노인 지원 제도' 31%와 '장애인 지원 제도' 30%로 나타났다.

[그림] 소수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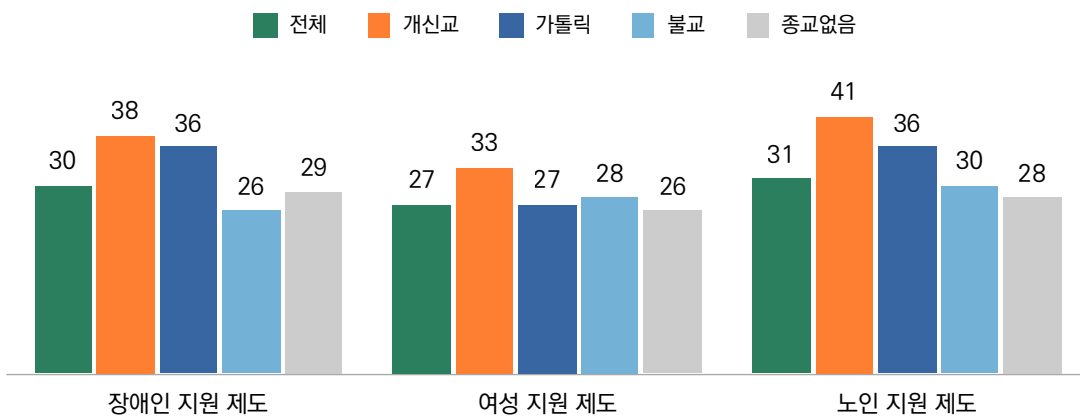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으로 확대(매우+약간)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축소(크게+약간)해야 한다 비율임

◎ 개신교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확대 의견 상대적으로 높아

- ▶ 소수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장애인 지원 제도, 여성 지원 제도, 노인 지원 제도 모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종교인(무종교인 포함)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전체 평균인 31%보다 10%p나 높았다.

[그림] 소수자 지원 '확대해야 한다' 응답률 (종교별, %)



*5점 척도 질문으로 확대(매우+약간)해야 한다 비율임/ 기타는 제외

“베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다. 북풍이 불고 겨울이 되자 베짱이는 꽤나 곤궁해졌다. 굶어 죽게 된 베짱이가 이웃인 개미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 개미가 물었다. “더운 여름 동안에는 뭘 했니?” 베짱이가 대답했다. “밤낮이고 노래만 불렀어.” 그러자 개미가 “노래를 불렀다고? 좋아. 이제 춤을 추렴.”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거절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이다. 추운 겨울을 미리 대비한 현명한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나지만 일할 때 게으르게 놀았던 베짱이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이 우화는 혹독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교훈을 준다. 어려서 이 우화를 접하는 어린이들은 젊어서 노는 베짱이를 본받지 말고 개미를 본받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치관이 변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므로 현재에 충실하자는 ‘올로’ 현상이 대두된 것이다. ‘올로’는 ‘YOLO’로 표기되는데 원래 문장은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번 뿐이니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긴다는 의미이다. ‘올로’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 소중하므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쾌락을 위해 비싼 명품을 소비하고 거침없이 소비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올로가 사회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세계행복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0위다. 저성장, 청년실업 등 불안함 외로움 등이 지속되다 보니 현재의 행복만이라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 무력감이 현재를 즐기는 올로 라이프로 확산된 것이다.

이번 「넘버즈」에 따르면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데에 우리국민 43%가 동의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함’에는 27%만이 동의해서 올로적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원래 젊은이들 중심에서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로 현상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데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현세주의적이다. 올로는 ‘현재’를 즐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미래의 영원한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회의적 사고의 발로가 올로 현상이다. 현대인들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재가 ‘모든 것’이므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는 이제 의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세주의적 삶에 대해 성경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나’(시편 84:10)라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며 그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쾌락주의이다. 올로는 현재를 ‘즐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은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쾌락이다. 고대 그리스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쾌락주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고통을 수반하므로 멀리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올로는 물질적인 쾌락을 중시한다. 올로 현상은 젊은 세대가 비싼 명품을 구매하는 등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면서 포착되었다. 올로 현상은 물질적, 감각적 쾌락 추구가 기본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로마서 1:23)고 질타한다.

셋째 자기중심적 가치관이다. 올로는 현재를 즐기는 주체로서의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세상의 평화, 정의,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임지도록 맡기셨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을, 자연을,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의 현재적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그것보다 더 가치있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일깨우며 그 가치를 실현시켜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1.[경제성장 대비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수준(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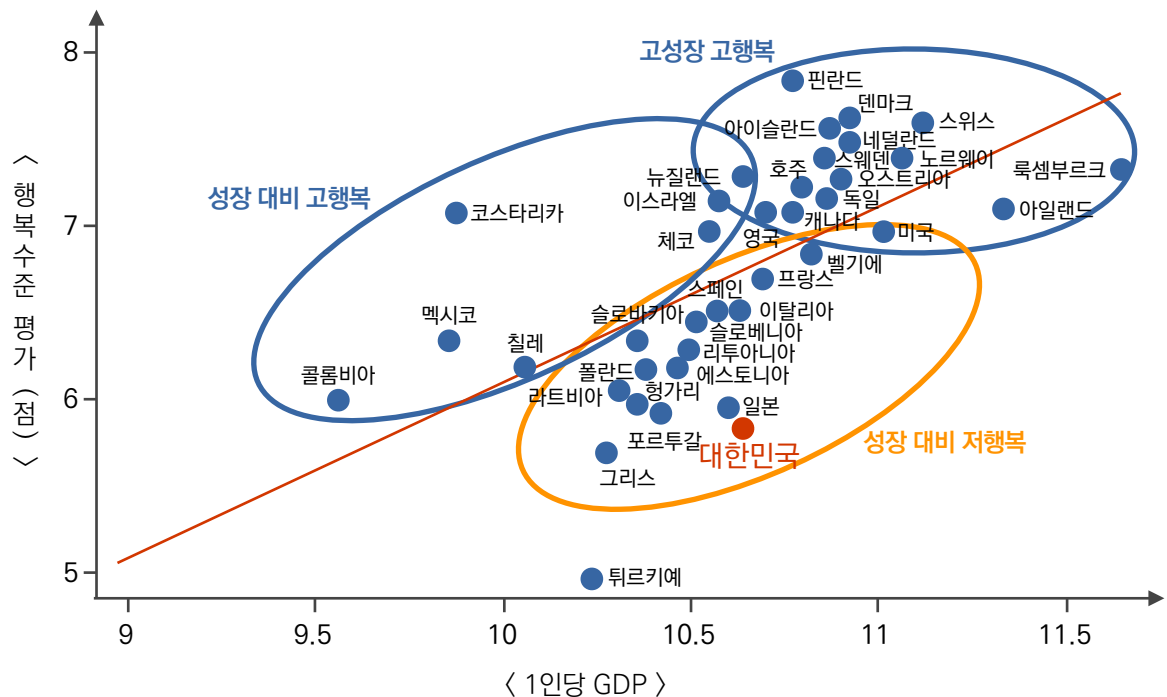
2.[한국 시도별 워라밸 수준 비교]



한국인, 경제 성장 수준 대비 행복하지 않다!

- ▶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행복 수준은 세계 50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총 95개국 조사, 2020)
- ▶ 행복 수준과 GDP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군에 속해 있어 경제성장 수준 대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OECD국가의 경제성장 수준과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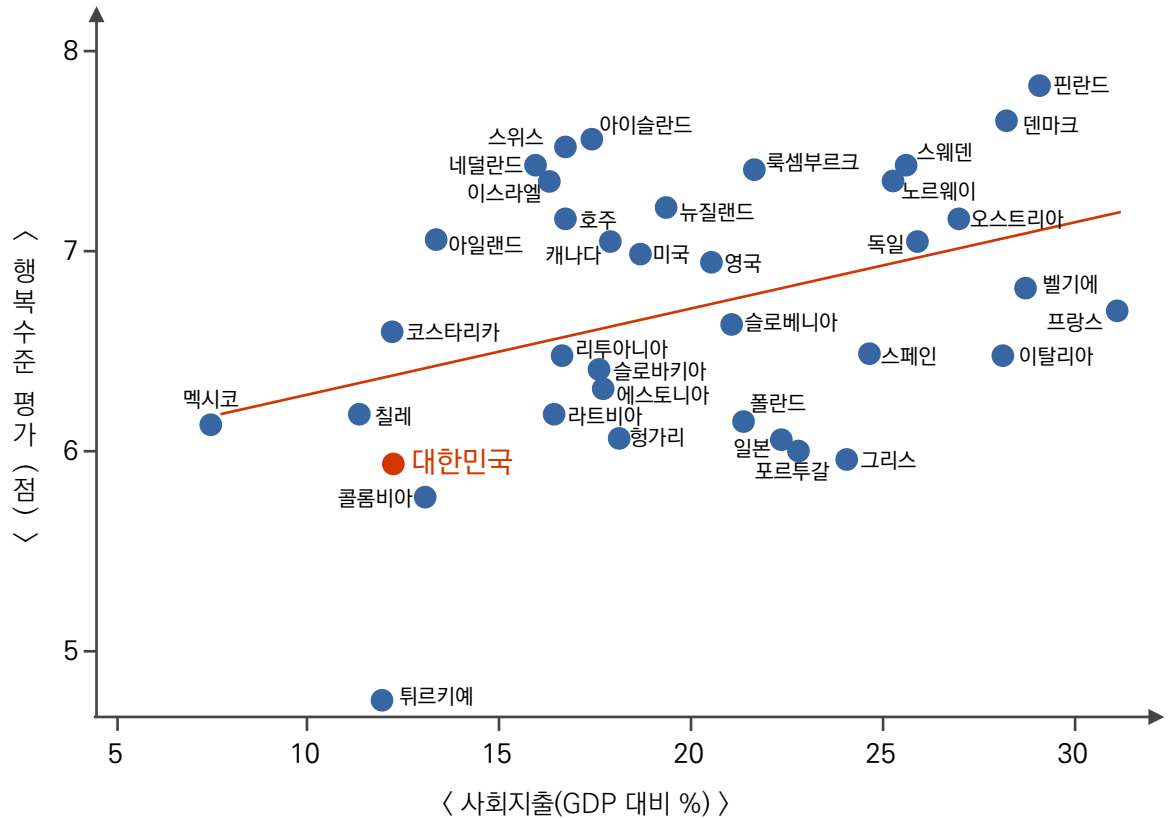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이슈분석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행복 수준 평가는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happiness-trust-and-deaths-under-covid-19/>에서 저자가 발췌)

◎ 한국의 복지 수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 ▶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202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로 OECD 평균(20.0%)에 비해 한참 낮으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이다.
- ▶ 사회지출 규모로 측정하는 복지국가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행복 수준과 복지국가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역할(행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통계 구축)수행 등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OECD 주요국의 복지국가(사회지출) 수준과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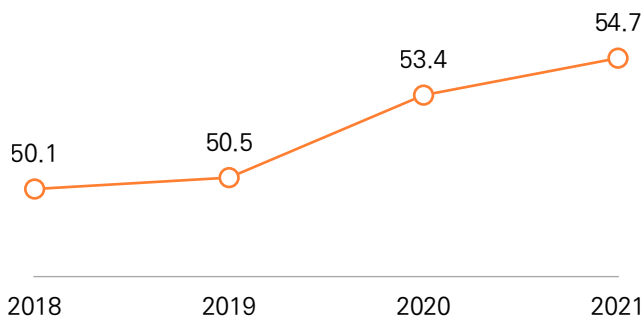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이슈분석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
 (행복 수준 평가는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happiness-trust-and-deaths-under-covid-19/>에서 저자가 발췌)



우리나라 워라벨 수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 ▶ 우리나라 전국 평균 워라벨 수준은 어떠할까? 고용노동부가 최근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는데 일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과 24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각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수준, 즉 워라벨 수준을 분석하였다.**
- ▶ '전국 평균 워라벨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며, 2018년 50.1점에서 2020년 53.4점, 2021년은 54.7점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워라벨) 지수 변화 추이 (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2023.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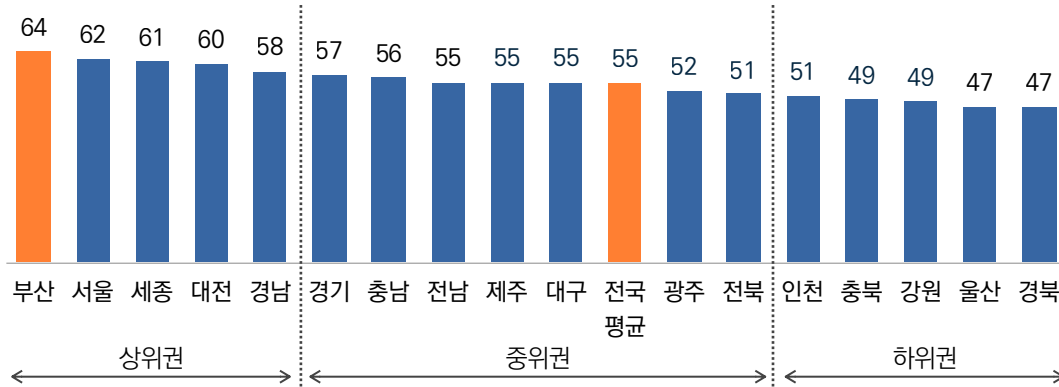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고, 영역과 영역별 세부지표에 적용된 배점은 계층분석법(각 항목간 중요도에 대한 상대비교)에 따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산정함.

영역	배점 (총합100점)	세부지표 (24개)
일	22.1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가족/여가)	30.1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	22.8	①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2021년 대한민국에서 워라벨 지수 가장 높은 곳 1위 '부산'!

- ▶ 우리나라의 17개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워라벨 지수 총점을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속했고,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등이었다. 하위 그룹에는 강원, 울산, 경북 등이 위치했다.
- ▶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20년 1위였던 '서울'이 2021년엔 2위로 밀려나고, '부산'이 1위로 올라섰다.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보인 가운데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은 상승폭이 컸고, 제주(3위→9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시도별 일·생활(워라벨) 균형지수 (2021년, 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2023.01.11

[표] 시도별 일·생활 균형(워라벨) 지수 순위 (각각 상위 5위)

	2020	2021
1	서울	부산
2	부산	서울
3	제주	세종
4	세종	대전
5	경기	경남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한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따져 보니...](#)

SBS 뉴스_2023.01.22.

◎ 사회 일반

["외로움,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해로워"… 설에도 은둔하는 청년들](#)

헬스조선_2023.01.21.

["마음 걸어잠근 사람들 두드리고 또 두드려요"](#)

동아일보_2023.01.21.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7.3개월 돌봄](#)

한겨레_2023.01.25.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시사IN_2023.01.25.

[우리나라 성평등은 75.4점... 의사결정분야는 30점대](#)

여성신문_2023.01.26.

[소득 맞춰 끼리끼리 하는 결혼, 한국이 가장 적다](#)

한겨레_2023.01.29.

[지구 종말까지 90초...우크라전쟁으로 파멸까지 '한발짝' 더 접근](#)

연합뉴스_2023.01.25.

[K팝·드라마가 쏟아올린 공...한국어 인기 중국 제쳤다](#)

국민일보_2023.01.23.

[청년 사라지는 한국 ... 취업자증가율 2040년 'OECD 꼴찌'](#)

매일경제_2023.01.25.

["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는 줄어"](#)

연합뉴스_2023.01.31.

[2023년 설 특집 여론조사, (KBS-한국리서치)]

[1. 윤 대통령 "잘 못한다" 54.7%·"잘 한다" 36.3% _2023.01.21.](#)

[2. 김기현 28.2%·안철수 19.3%·나경원 14.9%...與 지지층 선택은 _2023.01.21.](#)

[3. 이상민 장관 사퇴?...찬성 48.7%·반대 45.7% _2023.01.22.](#)

[4. "대통령 4년 중임제" 51.4%·"소선거구제 유지" 58.5% _2023.01.2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YTN 세계경제 전망 하향조정 "수십년 사이 최저치"](#)

YTN_2023.01.26.

[하루 중 '이 시간' 업무 능률 가장 높더라](#)

헬스조선_2023.01.18.

[“회의 왜 하는지...” 직장인들 불만 이유 1위는](#)

조선일보_2023.01.19.

[이걸요? 제가요? 왜요?... 대기업 임원들, MZ세대 ‘3요’ 주의보](#)

조선일보_2023.01.31.

[금수저 첫 월급, 흙수저보다 11% 많았다](#)

중앙일보_2023.01.19.

[중소기업 90% "내국인 근로자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연합뉴스_2023.01.18.

◎ **기독교 / 종교**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3억 5900만명... 박해국 1위 북한](#)

더미션(국민일보)_2023.01.19.

[비개신교인 '기독교'에 관심 없다](#)

한국기독교공보_2023.01.13.

[약해져가는 섬 섬 섬... 복음의 등대가 꺼져간다\(국내 섬 선교 실태조사\)](#)

국민일보_2023.01.21.

◎ **칼럼**

[공부 못한다는 비난이 칭찬보다 강하다는데... \[별별심리\]](#)

헬스조선_2023.01.26.

[일본은 "엄마처럼 살고 싶다" 한국은 "엄마처럼 안 살겠다"](#)

중앙일보_2023.01.25.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천중앙교회 (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회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지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릭스,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우,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근,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상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형, 윤동하,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국,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석준, 이선진, 이성근, 이성덕,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명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웅,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우,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환,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서울중앙교회.영등포(담임목사 이정민), 영락교회(담임목사 김운성), 희성교회(담임목사 박태웅), 내일교회(담임목사 이관형), 서울은천교회(담임목사 박흥범), 김대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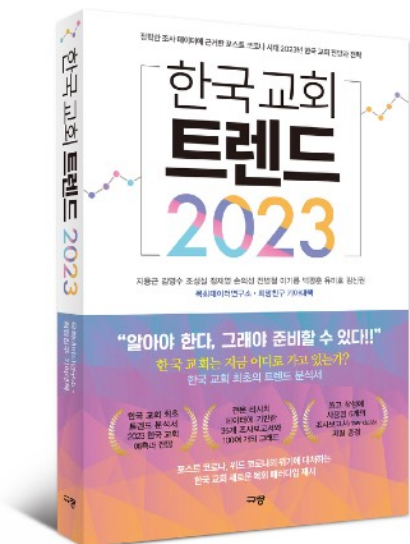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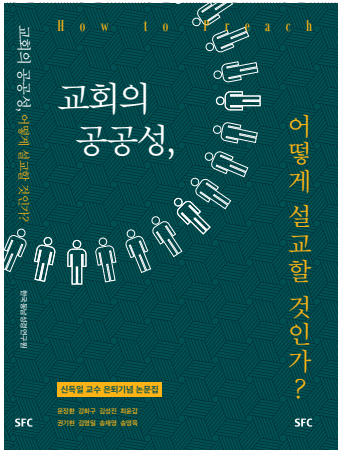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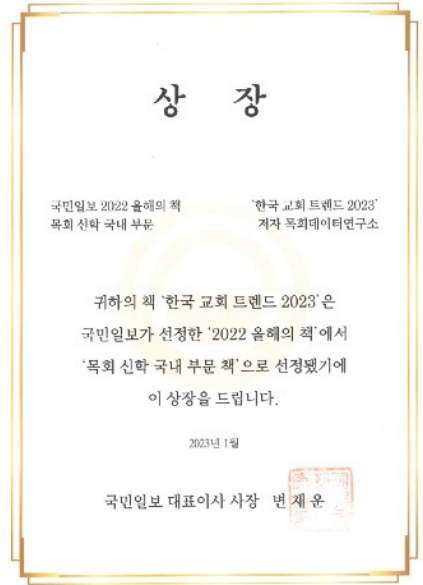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 연구소 소식 1 |

저희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이 국민일보가 선정한 '2022 올해의 책'에서 '목회 신학 국내 부문 책'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받았습
니다.



| 연구소 소식 2 |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동남성경연구원'에서 세미나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국동남성경연구원 윈터세미나

- 주제 : 구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 일시 : 2023.1.30(월) 오후 2시 ~ 2.1(수) 낮 12시
- 장소 : 진주삼일교회(진주시 석갑로91번길 8-17)
- 문의 : 총무 송재영 목사(010-9543-7333)

온라인신청
QR코드

